



우리 분단위원장



김영희

방금 분단모임이 끝났습니다.

수군수군하는 동무들을 마주보지도 못하고 선생님의 뒤를 바짝 따라서던 나의 가슴속에선 《쿵, 쿵.》 방아소리만 커갑니다.

(어찌니? 꽤나 별나겐 됐네... 호...)

나의 얼굴은 우등불앞에서 시랑송을 하던 때보다도 더 확확 달아오릅니다.

글쎄 전학온지 도제 한달밖에 안됐는데 내가 분단위원장으로 되다니? 곱슬머리 분단위원장을 《밀어》내고...

왕방울눈을 데룩데룩이던 진영동무의 모습이 확 안겨오는가 하면 흥! 그럴줄 알았어! 하며 코웃음칠 철호의 얼굴도 나타납니다.

(호... 이젠 다 너때문이야...)

나는 살뚱이 내려감았던 눈을 찡그리고 내 팔에 자리잡은 두줄에 별 세알짜리 분단위원장표식을 원망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앞서가는 선생님만 아니라면 그 열성자표식을 슬며시 떼고만 싶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바로 이 열성자표식때문에 전학온 첫날 싱겁게 망신했는데...

군관이었던 아버지가 제대되어 새 일터로 온 후 다섯달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와 이사온 그날은 봄날의 해빛이 온 얼굴을 간지럽태우던 3월의 어느날이었습니다.

이사짐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내가 다니게 될 학교부터 가보고싶었지만 늦은 저녁이어서 그럴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래일 새벽에 일찍 깨워야 해요— 예?》

이렇게 어머니에게 다짐도 했지만 미타한 마음에서인지 꿈에서까지 푸름푸름 밝아오는 새벽이 나타나고 깨어나려 애쓰다가 속상해하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반짝 눈을 떴는데 《야!—》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소년단에 입단하던 그날부터 꼭꼭 지켜온 새벽기상시간 5시를 그대로 지켰던것입니다. 집이사로 최전연의 산골집에서 아파트의 5층집으로 잠자리를 옮겼어도 난 어김없이 이 시간에 일어났거던요!

나는 유치원시절처럼 나풀대며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눈웃음을 치며 큰길가로 내려서는 나를 바랬습니다.

어리광치며 흰안개가 찰찰 매감졌습니다.

찬 안개이슬방울들이 길다란 나의 속눈썹에까지 촉촉히 스며들어 나의 정신이 새록새록 맑아지게 했습니다.

두개의 대형구호판을 지나 세멘트다리를 건느니 내가 다닐 학교가 어슴푸레한 속에서도 척 안겨왔습니다.

《야! 영웅중학교!》

따발총을 억세게 틀어쥐고 승엄한 모습으로 서있는 장룡인영웅의 모습!

정문과 중앙현관문우에 《장룡인고급중학교》라고 써있는 그 글자가 왜 이렇게도 마음 울렁이게 하는것이겠습니까?

(충심아, 현아야, 난, 난 오늘부터 영웅중

학교 학생이야, 내 쪽 너희들 마음까지...) 잠시후 영웅의 반신상앞에 서니 귀전에 응웅— 아버지가 편지로 알려준 영웅의 전투이야기가 막 울려오는것이였습니다.

《...장룡인영웅은 1953년 7월, 전승을 며칠 앞두고 벌린 339고지전투에서 적의 반보병지뢰원 3개소를 해제하고 비밀통로를 열어놓은 다음 보병들의 돌격로를 가로막는 적의 중기화철을 자기의 피끓는 가슴으로 막아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한 공화국영웅 이란다...》

전승을 며칠 앞두고?...

야! 아마 그때 하루하루 다가오는 전승의 감격과 기쁨은 온 고지에도 퍼져있었겠지? 하지만 전투의 승리,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려고 그 전투에서 자기 한몸 서슴없이 바친 장룡인영웅!

나는 빛나는 금별메달을 우러르며 들고왔던 꾸레미를 헤쳤습니다. 동글동글한 조약돌들이 정다운 분단동무들의 모습으로 어러웁니다. 떠나는 날 고향의 수정천에서 고르고골라 한알씩 안겨주던 충심, 현아...

수진동문 몰래 두알을 넣고 눈을 깜벅깜벅했지... 그래서 분단동문 스물일곱이여도 스물여덟알이 된 조약돌...

나는 반신상옆의 봇나무밑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조약돌들을 놓았습니다.

《히야, 멋있는데...》

《누구야?》

《몰라...》

《넌 아니?》

《아니, 처음 봐...》

어느새 모여왔는지 내포래의 동무들이 나를 둘러싸고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나는 이내 생긋 웃음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신상앞에 다가가 맑은 유리함속에서 꺼내든 광약과 보드라운 빨간 비로도친으로 금별메달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도 서둘러 흠어졌습니다. 몇명의 여자애들은 중앙현관으로, 또 몇명은 꽃밭으로, 키 큰 남자애와 곱슬머리남자애가 내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코등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훑으며

내결의 곱슬머리를 슬쩍 넘겨다보았습니다.

그 애도 분단위원장이였습니다.

세알의 별이 반짝반짝 날 보며 웃고있었거던요.

새벽이슬에 젖은 통통한 손, 반가움과 호기심으로 반짝이며 마주 웃는 작으나 동그란 눈, 웃음이 넘칠가 걱정되어 억지로 꼭 다문듯싶은 입술...

그 애는 열심히 금별메달을 닦으면서도 동무들을 한명한명 바라보고있었습니다. 그애의 까만 두눈엔 기쁨이 가득히 어려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연분홍색의 3층교사가 뚜렷해지고 영웅의 반신상과 아이들의 모습은 꼭 하나의 그림같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운동장을 나서는 그들의 뒤를 따라 나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제야 곱슬머리 분단위원장애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새로 온게구나?》

나는 덩이를 살짝 내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약돌... 참 멋있구나야, 그건 어디서 샀니?》

멋적어진 나는 《응... 저 조약돌 말이야...》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순간 다정한 나의 분단동무들, 최전연마을의 잊지 못할 동무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러왔습니다.

어느새 앞서가던 아이들도 곁에 다가와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자 유치원생처럼 코를 훌쩍훌쩍 훑치며 데룩데룩 왕눈으로 나를 훑쳐보던 키작은 남자애가 《행—》 소리를 내며 자랑했습니다.

《우리한테두 말이야, 썩한 자랑애기가 있어.— 큰 칭찬 받은거—》

《어떤 애긴데?》

《차— 진영아, 넌 정말...》

《왜 그래? 이 애도 이젠 우리 학교 학생인데 온 학교, 온 마을이 다 아는 일을 몰라서 되니 뭐—》

《체, 체, 나팔통이 또 터졌구나.》

키 큰 애가 이렇게 느물대니 아이들이 까르르 웃어대면서 그 곱슬머리 분단위원장애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서 대주라는듯이 말입니다.

《뭘 큰 자랑은 아니야, 그저 너희네 동무들 마음이나 우리들 마음이나 같다는거야.》

분단위원장애의 표정이 사뭇 어른스러워집니다.

《우리 학교가 두해전에 영웅중학교로 명명되던 때였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고향땅의 전쟁영웅이었던 장룡인영웅의 투쟁자료를 찾아주시고 글썄 우리 학교를 장룡인중학교로 명명하셨대. 그리고 학교에 영웅의 반신상을 크게 세우도록 하시지 않았겠니? 그때가 살얼음이 살살 지던 11월이었는데 우린 반신상을 세우기 위해 달려온 건설자아저씨들의 작업모습을 보면서 봉— 기분이 떠있었다.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달려와보구… 집에 영 가고싶지 않더라니까, 하하…》

《그렇지?》 하는듯이 둘러보는 그 눈빛에 아이들은 싱글벙글 웃음으로 호응합니다.

《그래서 그때 분단위원장동무가 발기했잖니? 아저씨들의 일손돕기!》

눈이 큰 남자애가 안타깝다는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응, 그래서 처음엔 이것저것 심부름을 하다가 모두 떨쳐나서 기초들을 모아왔단

다. 저—기 보이는 저 강을 그저 큰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우린 곱고고운 돌들을 모아다가 깨끗이 닦아내고 또 햇빛에 싹 말리웠단다. 밤새 난로불에 동글동글한 돌들을 차곡차곡 말리우기도 했어. 꼭 727개를 저 반신상 기초에 넣었다.》

《727개?》

《응, 전승기념일을 꼭 맞추었지 뭐.》

《야!… 그러니 저 영웅반신상의 밑엔 727개의 자랑돌 아니, 동무들의 맹세와 마음들이 있구나!》

《역시 분단위원장이 달라, 생각이 깊단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저도 모르게 슬며시 왼쪽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야, 어찌니.…)

이제는 새벽도 아니고 청청 맑은 하늘빛에 나의 열성자표식이 해죽해죽 웃으며 뿔내고있습니다.

새벽에 뿔가말가하다가 그대로 달고온 분단위원장표식…

《그런데 참, 넌 몇반에 오니?》

《오… 1반에!》

《영? 우리 반이구나!》

《반갑다야. … 잘됐어. …》

《내 이름은 순이야.》

《난…》

녀자애들이 손뼉치며 내결에 찰싹찰싹 붙어서는데 남자애들은 아침해살을 받으며 앞서가면서 저들대로 웅얼웅얼댁니다. 그런데…

《체, 하필이면 우리 반에 올진 뭐야. …》

《그건 왜?》

《그래 한반에 두명의 분단위원장이 있으문 되니?》

그 나팔, 키가 작고 얼굴색이 킁킁해보이던 그 애의 목소리였습니다.

《피, 전학왔는데두 뭐 분단위원장이가?》

《글썄 누가 그렇대. 하지만 저렇게 분단위원장표식을 달구나온걸 보면 그냥 하구싶어



서 그러는거야. 저 애 말하는거랑 보려 마. 저 이악쟁이 순이보다두 더한것 같지 않니?》

쑹얼쑹얼하는 소리가 멀어져가도 왜선지 방송처럼 왕왕 크게만 울립니다.

그래, 그 애 말이 틀리진 않아....

나의 눈앞에 지나간 소년단모임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차렷! 우로 뵈!》하고 씩씩하게 보고도 하고 영예의 붉은기분단의 분단위원장이 되어 토론을 하던 일, 토끼기르기를 잘해서 《소년신문》에 날 때 더더욱 자랑으로, 긍지로 나를 돋구어주던 이 열성자표식... 솔직히 떼어놓자면 얼마나 서운한 마음입니까. 사실 집이사가 늦어진것도 2월명절을 맞으며 진행한 2중영예의 붉은기분단수여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선 나는 얼른 그 열성자표식부터 뺐습니다.

(호... 이젠 너하구 작별하자....)

《선화야, 새 학급에서 공부하는데 절대로 이전때처럼 놀면 안돼, 알겠니? 떠나던 날 쌤꼴선생님도 당부했지?》

나의 마음을 어느새 아셨는지 어머니의 혼시가 시작되자 나는 까르르 웃음을 터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젠 분단위원장이 아니라는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소년단원 홍선화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우스개를 피우던것처럼 거수경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분은 그저 좋기만 한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학급에서의 두번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실은 2층 오른쪽으로 첫번째, 나의 자리는 창문쪽줄의 세번째 자리였는데 내옆에 나팔소리처럼 목청이 높은 진영동무가 앉아서 공부합니다.

두번째 외국어수업이 끝난 뒤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물음에 짹짹 매던 진영동무를 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미운 사람 떡 한개 더 준다는 격인지....

《진영동무.》

나는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

《영어단어 말이야, 매일 아침마다 열개씩 단어를 외우면 다른 동무들을 얼른 따라잡을수 있어. 오늘 선생님이 물어본건 1학년때 배운 단어인데 여기 다 있어. 가지고 공부해.》

《?》

왕나팔의 두눈이 데룩거렸습니다.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그 애의 책상에 단어장을 놓았습니다.

《체, 뭐다면 깨꼬한다더니....》

획- 날아가는 단어장.

그런데 어찌니!

단어장과 함께 열성자표식도 함께 툭 떨어지는걸....

그건 분명 교복에서 떼여 가방안에 넣었던건데...

《흥, 제가 뭐 아직도 분단위원장이냐 하는게야, 분공이나 주는것처럼... 분단위원장 하구과서 열성자표식이란 계속 그렇게 가지 구다니지 말구 딴 분단에 가거나 분단위원장 하렴. 우린, 우리 분단위원장, 좋은 분단위원장이 있단 말이야!》

《어마나!》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기가 막혔습니다. 자길 도우려 했는데...

아래입술을 아프게 깨물며 참았지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오전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지 몰랐습니다.

밥맛이 다 없었습니다.

책상에 오도카니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 재촉합니다.

《왜? 밥을 안 먹니?... 이자 길에서 너희 선생님을 만났됐다. 너때문에 걱정하시더구나. 그런걸 내가 <우리 선환 그렇게 끔한애가 아닙니다. 그 앤 군관이었던 아버지를 닮아서 또 늘 군대들속에서 자라서 씩씩하구 활달한 성격이니 걱정 놓으십시오.》 하고 말해주었다. 그렇지, 선화야?》

기대가 한껏 어린 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시뻘이 웃었습니다.

《선화야, 선생님에게서 들으니 진영이가 그럴만한 사연이 있더구나. 글썄 진영이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더구나. 그래서인지 그 앤 찍하면 감기에 걸리는데 그래서 축농증이 떨어지지 않는다질 않니. 그 애 어머니 공장 고급선반공이구 그 애 아버지 로력혁신자인데 현장에서 순직하셨다누나. 그래서 너의 분단위원장애가 열성스레 약두 써주구 공부랑 함께 하면서 늘 한집에서 살다싶이 한다질 않니? 아마 친형제보다두 더 다정할게다. 그러니 네가 미웠겠지. …》

(그랬됐구나!)

어머니의 말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진영이란 애의 병이 초연분대장이 앓던것과 같은것 같애. 인차 시간을 내여 진영이를 진찰해보겠다. 너도 그 엘 잘 도와줘라.》

《아니예요, 그 앤 내 도움을 받으려고 안해요. 그런데 뭐 억지로…》

《억지로라도 그래야 한다. 분단위원장하던 애답게 마음속 그릇이 커야지.》

(마음속 그릇?!…)

어머니의 말썸을 되뇌이노라니 곱슬머리 분단위원장의 너부죽한 얼굴이 눈앞에 어려웁니다.

왜서인지 뜨거운 그 무엇이 짹 차오릅니다.

위하는 그 마음, 뜨거운 그 마음.

그 마음이 분단동무 마흔명을 하나와 같이 새벽 5시 기상, 사적지와 영웅의 반신상 관리사업 등으로 불러일으켰겠지. …

생각이 깊어질수록 나는 내 키가 점점 작아지는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어느새 진영동무네 집앞에서 멎었습니다.

똑딱, 똑딱. …

마당에서 망치질소리와 웅얼웅얼 말소리, 짹- 짹 대패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할가?)

나는 내 키를 가리운 울타리밧의 계단에서 살며시 대문짚으로 마당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영아, 자, 여기. 응… 됐어. …》

곱슬머리 분단위원장입니다.

뭔가 맞가지 않은듯 역시 나팔주둥이처럼

입술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섬기는것은 진영동무입니다.

《이젠 됐어, 자 어때?》

《…》

《진영아, 너 아직도 그럴래?》

아예 뿌리뽑을듯 분단위원장이 마당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넌 네가 하는 그 행동이 영웅중학교 학생답다고 생각하니? 응? 넌, 넌 분단모임때 어떻게 결의했니? 장릉인영웅처럼 영웅이 되겠다고 했지. 그래 영웅이 되겠다면서… 영웅이라면 너처럼 행동하는게 옳은거야? 나만 동무구 새로 전학온 동문 그럼 뭐야? 선생님이 들려주셨지. 영웅의 그 마지막 전투이야기. 화구를 까부시던 그 마지막 순간 영웅은 자기와 함께 온 전사를 밀어내고 저혼자 화구를 향해 한목숨 내댔지. 그래,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가시철조망우에도 서슴없이 자기 몸을 댈수 있겠어? 화구를 막을수 있겠어?》

《나두 알아. 하지만 그 애의 분단위원장 열성자표식이 눈에 자꾸 거슬려서…》

《선화동무가 그 분단위원장표식을 소중히 여기는건 그곳 분단동무들에게 정이 들었구 2중영예의 붉은기를 받고 인츰 떠났으니 그걸 잊을수가 없어 그랬을거야. 넌 반신상앞에 있는 그 조약돌 보기가 부끄럽지 두 않니?… 진영아, 영웅중학교 학생이라는 이 부름앞에 우리 떼뻗하자꾸나.》

《알겠어. …》

시무룩한 대답이었지만 깡- 함통을 드는 진영동무의 얼굴엔 어색한 웃음기가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그 함통이 글썽 우리 집으로 울줄이야. …

《선화동무!》

집에 한발 먼저 돌아온 나를 찾는 진영동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진영동무가 커다란 눈을 슴벅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보물함이야. 우리 분단동무들에겐 다 있어.》

《보물함?》

《응. 파철, 파고무, 파비닐... 이렇게 칸들루 갈라놓지 않았니? 제일 큰 여기엔 파철을 넣어라... 나라를 위하고 우리 조국을 튼튼히 지키는데 우리들도 한몫 하자고 분단위원장동무가 발기한거야.》

《그래!—》

나는 무척 감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전연마을 동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애들도 역시 보물함들이 너도나도 생길것입니다.

×

점심참의 해빛이 제법 쟁글쟁글합니다.

소년단실에서 나와 교실에 오니 텅 비었습니다.

다만 내 책상우에 낫익은 분단위원장의 사업일지며 분단문건들이 쌓여있었습니다.

(그 동무도 무척 서운하겠지? 야 참, 진영동무 말대로 내가 그를 밀어내다니?)

이때 밖에서 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우리 분단동무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무슨 작업을 할 차림을 하고있었습니다. 공부가 끝난지라 학교는 조용한데 그 애들만 한데 모여 떠들어댁니다.

나는 급히 운동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야, 저기 선화동무가 온다야!》

《체 체, 선화동무가 뭐야? 분단위원장보구...》

아이들이 저마끔 웃음지으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서 눈을 찡찡 흘길것 같던 진영동무랑 철호동무랑 사기가 나서 병싯병싯합니다.

《영웅의 반신상주변의 꽃나무들에 회칠을 하려고 해. 전주 일요일날 하기로 했던거비가 와서 못했잖니. 미진된 그 계획 내려가지 않아 끽끔거리니까 동무들이 모두 이렇게 떨쳐나섰어. 점심들두 안 먹구 말이야.

자, 얼른 해제끼자!》

웃음이 철철 넘치는 분단위원장동무의 그 모습.

이런 훌륭한 동무를 밀어냈으니 난 참 어쩔 좋아?

서운함을 감추고 우정 더 성수를 부리는 듯싶은 그가 무안해할가봐 나는 더 말을 건네지 않고 동무들과 휩쓸려 회가루칠을 했습니다.

동무들은 《분단위원장동무!》, 《분단위원장동무!》하고 정답게 나를 찾고 불러주며 어찌보면 아예 그를 잊은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웃음꽃을 피우는듯싶었습니다.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슬렁슬렁하는 동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을것입니다.

《영웅이라면 지휘관이 바뀌었다고 전투 임무를 췌버리겠니?...》하고 말입니다.

잠시후 꽃밭은 멋지게 달라졌습니다.

동무들이 돌아간 뒤 나는 교실에서 분단을 인계받았습니다.

하지만 몇권의 분단일지로 분단을 다 인계받았다고 할수 없는 나의 감동된 마음입니다.

《분단위원장 홍선화동무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바라며!》

이런 글이 속표지에 씌여진 새 사업수첩을 기념으로 주면서 싱긋 웃는 곱슬머리동무— 바로 그 애의 이름은 리철봉이었습니다.

리철봉동무!

참으로 그 동무는 내가 본받아야 할 모범 분단위원장, 우리 분단위원장, 영웅학교의 참된 소년단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영웅중학교 학생이다!》

조용하나 기백이 넘친 이 말이 나의 가슴을 언제나 울려줄것입니다.

다음날 《소년단원의 날》인 이날 아침 새로운 학교소년단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바로 철봉동무가 학교소년단위원장으로 선거되었답니다.

(방현구역 장릉인고급중학교 교원)